

## 여성 살인 사망자

2019 년 3 명의 여성이 편의점과 식료품점에서 일하던 중 살인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 10 년 동안 여성의 근무 중 사망 원인은 살인이 가장 많았습니다. 살인 사건은 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에게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런 폭력적인 죽음은 가족과 다른 근로자, 그리고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줍니다. 주인과 고용주는 자신과 직원을 보호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세부 내용

#### 보고서 번호:

47-29-2021K

#### 보고 날짜:

2021 년 1 월 30 일

#### 산업 분야: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맥주, 와인, 주류  
판매점

#### 직종:

계산원  
매니저

#### 위험 요소:

단독 근무

금전 취급 업무

심야, 혹은 새벽  
근무

범죄율이 높은

지역 근무

### 강도의 칼에 찔린 주인

동네 상점 주인인 59 세의 여성이 혼자 가게 카운터 뒤에 있다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10 시,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보안 카메라에 그가 통로에서 물건을 집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그 뒤 그는 카운터로 가 주인에게 강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돈을 갈취한 뒤, 막으려는 주인을 칼로 두 번 찔렀습니다. 주인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차로 쫓으려 하다가 멈춘 뒤 사망했습니다. 검시관은 주인이 제자리에 있었다더라도 부상으로 사망했을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 강도의 총에 맞은 주인

79 세의 편의점 주인은 남편이 가게 사무실에 있는 동안 계산대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5 시, 총을 든 두 명의 남성이 가게로 들어와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현금을 건넸습니다. 그중 한 명이 그녀에게 가게 사무실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이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가해자는 그녀의 등을 쏘고 도망쳤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전에도 아무도 다치지 않는 않았지만 수차례 강도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해 매장 전면에 창을 설치하고 영업시간도 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강도의 총에 맞은 계산원

30 세의 계산원이 주유소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년간 그곳에서 일했습니다. 화요일 새벽 4 시 직후, 19 세 청년 한 명이 가게로 들어와 권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는 현금과 담배를 요구했고 그녀는 그걸 건넸습니다. 그 뒤 청년은 그녀의 가슴을 쏘았습니다. 그녀는 겨우 911 에 연락했지만,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범인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세 사람은 살인 사건 직후 체포됐습니다.

## 필요 사항

- 고용주는 실무에 효과적인 사고 예방 프로그램(Accident Prevention Program, APP)을 수립하고 이를 감독, 시행해야 합니다. APP 는 특정 작업장의 필요와 관련 위험 내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Washington 주 행정 코드 \(Washington Administrative Code, WAC\) 296-800-140](#) 참조
- 야간 영업을 하는 소매점 고용주는 [49.22 Washington 주 개정 코드 \(Revised Code of Washington, RCW\)](#)를 준수해야 합니다.

## 권장 사항

- 방탄 차단벽, 또는 가림막을 설치해 근무자를 보호합니다.
- 계산대와 고위험 구역이 보다 많은 사람의 눈에 띄이도록 합니다.
- 직원을 늘리거나 교대 근무자 단독 근무 시의 위험 증가에 대비합니다.
- 지역 사회 및 법 집행 기관과의 관계 구축을 통해 안전을 증진합니다.

## 참고 자료

- [Crime Victims Compensation Program \(범죄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CVCP\)](#)에 따른 살인 피해자 가족 보상
- [심야 영업 소매점에서의 Workplace Violence Prevention Programs \(직장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국 \(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 권고](#)

